

철학에의 권유

최명관

1. 철학이란?

철학이란 매우 묘한 혹은 맹랑한 것이다. <묘한 학문>이라 할 수 있겠으나, 우선은 <학문>이란 말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철학’이란 말을 한자로 哲學이라 쓰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학문은 學이란 말 앞에 적힌 것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철학은 哲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도대체 哲을 연구하는 학문은 없다. 한국·중국·일본 등에서 쓰이는 ‘哲學’이란 말은 西歐語 philosophia를 옮긴 것이라 한다. 이 말 속에는 <학문>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를 뜻한다. philosophia는 결국 지혜를 사랑하는 정신의 활동이다. 여기서 <지혜>란 무엇이며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따진다면 오랜 시간을 소비해야 될 것이다. 그 옛날 플라톤은 사랑 중 하나인 에로스(eros)에 관하여 제자들과 더불어 하루 저녁을 담론하였다. 그런데 지혜는 지혜이며 사랑은 사랑이요 누구나 다 아는 것인데, 새삼스레 그 뜻을 따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흔히 생각할 터이다. 철학한다는 사람들이 새삼스레 그것을 따진다는 것은 할 일이 없어 심심풀이로 하는 짓거리가 아닌가 개탄하는 사람이 있을 법도 하다. 하지만 그것은 철학한다는 사람들이 한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볼 만한 문제들이다.

우선, 진리.

예수에 대한 빌라도의 마지막 심문에서 빌라도가 묻는다: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그러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나?”고 물었다. 로마 총독이면 그 당시로는 상당한 학식이 있었을 것이요, 세상에서 흔히들 말하는 ‘진리’란 말의 뜻을 몰랐을 리 없건만 새삼스레 “진리가 무엇이나?”고 물은 것은 예수가 말하는 ‘진리’란 말의 뜻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신학적으로는 예수 자체가 진리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을 뵈었는데,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라 물으시니 백성을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였다. 그래서 그는 국제적으로도 이름난 지혜로운 왕이 되었으나 차츰 색욕에 빠져 7백 명의 후궁과 3백 명의 수청 드는 여자와 사랑을 나누었다고 한다. 『성서』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라 적혀 있다. 이렇듯 여인과의 성 관계에 대하여 ‘사랑’이란 말이 사용되었지만, 이런 경우의 ‘사랑’은 『고린도 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한 말씀 중의 ‘사랑’이란 말과는 천양지차가 있다.

어떻든 솔로몬을 지혜를 구하였다 하는데, 그 말로는 육욕에의 탐닉이었다. 이렇게 보아오면 인간들이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이 迷路에 빠지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philosophia의 경우, sophia는 <참된 앎>이라고 우선 간단히 옮겨 생각해도 괜찮을 것이다. 솔로몬의 경우, 그 지혜가 여인들에 대한 육욕에의 탐닉에 빠진 것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한 『성서』의 가르침 속의 지혜가 근래 기독교인들에게서 물욕의 충족을 의미하기 쉽게 되었을 때, 기독교의 타락이 생기게 되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근래 교회의 문은 부자들에게 활짝 열려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닫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철학이 <진리에 대한 사랑>이라 할 때, <진리>란 대체로 <참된 것>이라 치고, <사랑>이란 소위 <에로스>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에 대한 사랑과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요컨대 철학이란 참된 것을 알려는 정신의 활동이라 우선 정의할 수 있겠다.

철학은 정신의 활동인데, 철학은 하나의 학문인가? 어떤 한 분야의 지식을 체계 지워 논술하면 하나의 학문이 성립한다. 그런데 철학에는 체계 지워 논술할 단 하나의 분야가 없다. 모든 학문 내지 과학에서 진리라 주장되는 것의 근거가 확실하냐를 따지는 것이 철학의 한 가지 임무라고 하면, 철학의 대상은 한 가지 특수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어떻든 철학은 묘한 학문이다. 마르크스는 “철학은 빵을 굽지 않는다”고 했다 하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 적지 않은 분, 그리고 나는 평생 농사를 짓지도 않고, 길쌈 질 하지도 않고, 기타 물질을 생산하는 육체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평생 굽지 않으면서 살아왔다. 그러니 철학이 여러분이 나 나에게 빵을 구어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참으로 묘한 일이다. 또 philosophia, 즉 철학의 본래의 뜻은 사랑의 활동인데, 철학이라 하여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빵을 굽는 일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2. 철학하는 것은 인간이기에

요컨대 철학은 참된 것을 사랑하는 활동이라 대충 말할 수 있겠다. 참된 것에는 논리적으로 참된 것, 행실에서 (내지 도덕적으로) 참된 것 등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논리학·윤리학 등이 철학의 분과로 들어 있다.

그런데 이렇듯 철학이 참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자연히 참되지 않은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남에게서 참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도 참되지 않은 것을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철학은 일반적으로 비판의 학이다. 칸트의 세 주저가 <비판>이란 말로 매듭지어져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하겠다. 인간은 때로 참으로 맹랑한 생각을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동물이다. 또 객관적으로 생각하느니보다 자기 본위로, 따라서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쉽다. 또 아전인수 식의 생각을 하기 쉽다. 여기서 싸움이 싹트기도 하는데, 정치의 분야에서 이런 일을 흔히 보게 된다. 이런 싸움의 마당에서 철학하는 사람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참된 것, 참된 이치를 찾으려 애쓴다. 그리스에서 철학이 시작될 때, 그것은 신화 속의 엉뚱한 생각, 가정의 지배 아래, 때로는 공포심에서, 때로는 호기심 내지 편애(偏愛)의 생각에서 이지러진 생각을 하는 데서 이를 극복하고 객관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려는 정신의 활동 속에서 싹텄다.

보통 인간은 자기의 비위에 맞는 말을 듣기 좋아하고 그 말에 거짓이 들어 있어도 듣기 좋아한다. 현대 철학적 정신은 이런 정신적 상황을 돌파하려 한다. 인간들 중에는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다. 악인은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또는 몰라서 악한 일을 한다. 선인은 무엇이 선한지 알고 또 그것이 자기에게 해로워도 행한다.

인간들 중에는 별의 별 인간이 허다하다. 그 인간들 중에서 철학하는 이는 이치에 있어서 또 행실에 있어서 참된 것, 옳은 것을 추구한다. 그는 인간들 중 특이한 부류에 속한다 하겠는데, 그가 이와 같이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철학자는 인류 중 그 수가 적다. 많을 필요도 없다. 이리하여 철학은 흔히 고원한 이론을 일삼는 일이라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인간인 한에서 철이 들면서 철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길을 가다가 문득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고. 어디 가기 위해서다. 거기 가서는 뭘 하지? 할 일이 있지 않나! 그럼 그 일을 한 다음엔 뭘 한담? 그 일을 마치고 또 하루 일을 마치고는 잔다. 이튿날 아침엔 깬다. … 그러다가 결국 가는 곳은 무덤이다. 이렇게 생각하노라면 「인생은 허무하다!」는 명제가 진리로 성립할 법도 하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삶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봄

직하다. 열간이 아니고서는 누구나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생각한다고 하겠다.

意味.

의미를 생각하는 중에 더 나아가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 의미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가치론도 철학의 중요한 한 분야다.)

칸트는 1)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2)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3)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라는 철학의 세 가지 근본 문제는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란 근본 문제에 귀착된다고 하였다.

이 물음에 대하여는 고래로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定義)가 있어 왔다. 고전적 정의는 animal rational이다. 즉 인간은 이성을 가진 동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통하여 이성을 가졌다고는 도저히 보기 힘든 작태(作態)를 연출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인간들은 얼마나 많았던고! 아프리카의 황야에서 나타나 양 따위 약한 동물을 물어뜯고 찢어 먹는 호랑이나 사자 못지 않은 잔인한 짓을 한 인간들도 적지 않았다. 랫슬(Bertrand Russell)은 *Why I am not a Christian?*에서 자기가 크리스천이 아닌 것은 기독교의 교리에 무슨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가 저지른 허다한 도덕적 과오 내지 죄악 때문이라 하였다. 사랑과 자비를 본령으로 하는 기독교조차 때로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을진대, 하물며 여타의 인간 활동에 있어서랴!

긴즈버그(Allen Ginsberg)의 시에 다음과 같은 인간의 처절한 모습을 읊은 것이 있다.

오오 어머니,
안녕
검은 구두를 신고
안녕
공산당과 함께 찢어진 스타킹을 신고...
당신의 축 늘어진 부른 배를 부둥켜안고
히틀러를 두려워하면서
입으로는 서툰 농담을 하면서...
스트라이크를 한 듯 공장 굴뚝같은 배를 부둥켜안고
턱으로는 트로츠키와 스페인 내란을 이야기하면서
썩다시피 지친 노동자들을 위하여 노래하는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눈
당신의 눈은 러시아의 눈
돈 없는 당신의 눈...
당신의 눈은 굶주린 인도의 눈...
당신의 눈은 로봇들이 공격한 체코슬로바키아의 눈...
순경들이 야전병원으로 데려다 준 당신의 눈
수술대에 묶인 당신의 눈
체장이 절제된 당신의 눈
유산한 당신의 눈
전기 쇼크를 받은 당신의 눈
뇌엽 절제 수술을 받은 당신의 눈
이혼 당한 당신의 눈...

하지만 12세기에 우리나라를 침범한 몽고 군이 우리나라 여성의 젖을 잘라 삶아 먹었다든가, 임진왜란 때에 숨어 있는 어머니를 끌어내고 두 아들을 잡아 살해했다든가, 지난 번 세계 대전 때에 무수한 우리 부녀자를 끌어가 수옥(獸慾)을 채운 일본군의 만행에 비하면, 위의 시에 묘사된 여인의 모습은 로맨틱하다고 평할 수 있겠다. 그러니 “인간은 이성의 동물이다”라 한 고전적 정의는 인간에 관한 사실을 지적했다기보다는 <인간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한갓 당위(當爲)를 제시했을 따름이라 보여지기도 한다. 그리고 인간을 고통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짐승 같은 인간들은 자기 만에는 자기들의 만행이 더 이성적이지요 합리적이라 믿었는지도 모른다. 여기에 세기말의 모습이 보인다. 위에 인용한 긴즈버그의 시를 인용한 들뢰즈(Deleuze)·가타리(Gattari)의 유물론적 인간관은 인간을 인간 제조 공장이라 본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 중엽까지 활동한 카시러(Ernst Cassirer)는 인간을 animal symbolicum이라 정의하였다. 여기서 ‘symbol’이란 말로 그가 의미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 전체>이다. 인간은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는 중에 문화를 만들어내었다. 그러므로 씬볼 형식은 문화 형식이다. 그리하여 카시러는 문화 형식으로서의 언어·예술·역사·과학 등의 본질을 살피고 그것들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3. 철학과 현실

내가 해방 전후에 철학 공부를 시작할 무렵에 선배 철학자들이 자주 하신 말씀 혹은 쓰신 글에 “철학은 현실에서 출발하여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때 그 현실은 특히 <여기>·<지금>의 현실이었다. 다름 아닌 그 당시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이었다. 그 때의 우리 민족의 현실은 암담한 현실이었다.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그 때에 비하면 크게 달라졌다. 여기서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의 현실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현실을 보는 눈, 즉 시각(視覺)의 차이에 관해서이다.

최근의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한다. 수일 전 신문에 김 전 대통령의 말이 소개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거론하기 전에 수백만의 동족이 살상됐던 6·25 전쟁 도발에 대한 분명한 시인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 ... 통일 논의는 북한의 논리와 주장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부대변인은 “YS는 정신과 의사들조차도 연구 대상 1호로 지목하고 있는 사람이다.” 참으로 딱하다 할까. 어처구니없는 현실인식의 차이이다. 근래 우리나라 우익은 대체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의 우익은 매우 떠들썩한데... 누가 정말 정신병자인지 확실히 가려내야 하겠다.

이렇게 국론이 갈라져 있고 이런 상황이 악화하면, 해방 후의 좌우충돌에서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이 있게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김정일이 “한총련의 활동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평양에 앉아서 한국의 정치를 좌우하고 있다고 해서 잘못됨이 없다고 하겠다.

철학하는 이는 모름지기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파악해야 한다.

맺는 말

이상에서 철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진부한 얘기가 된 듯 하기도 하고 철학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 법도 하다. 철학에의 관심을 품게 되거나 이미 철학을 시작한 내지 하고 있는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 내지 자극이 되었으면 다행이겠다.